

## 박지원 선거사무소 개소…정청래·중앙 지도부 출동 '원팀' 결의

등록 2026.05.17 16:20:16 | 수정 2026.05.17 16:22:23



[서울=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후 전북 김제에서 열린 박지원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사진='델리민주' 유튜브 채널 캡처) 2026.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17일 김제 요촌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세 물이에 나섰다.

전날 매머드급 선대위 발대식을 마친 박 후보는 이날 개소식을 통해 당 지도부와 전북 지역 후보들을 한자리에 모으며 민주당 '원팀' 승리 체제를 한층 공고히 했다.

개소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성윤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 중앙당 핵심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박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전북도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도지사,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까지 모두 민주당이 힘을 모을 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전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민주당 승리를 위해 도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정가의 무게감 있는 인사들도 전방위로 결집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와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 박희승·모경중·김준환 국회의원,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인접 선거구이자 또 다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의겸 후보(군산·김제·부안갑)를 비롯해 정성주 김제시장 후보,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김재준 군산시장 후보 등 새만금 권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대거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최정호 익산시장 후보, 이남호·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등도 참석해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여기에 박지원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정치 9단' 박지원 의원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 등 당내 유력 인사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이어졌다.

박 후보는 "선거사무소는 단순히 선거를 치르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현장 사무실"이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 속으로 더 낮게 들어가고 바닥에서부터 성실하게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박지원 개인의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김제·부안·군산과 전북의 100년 만의 기회를 현실로 만드는 선거"라며 "민주당 원팀의 강력한 실행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